

여러분의 몸 하나 하나가 여래의 집입니다



그림 · 최주현

겁니다. 그래서 그 다람쥐를 보면서 '아, 그래 고맙다. 가르쳐 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다시 다람쥐가 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풀 하나라도 들어 아니라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환희심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한 1주일쯤 지난 뒤에 꿈을 꾸는데 꼭 이와 같이 제가 마이크를 들고 스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님, 제가 불정암에 갔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이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제 생각에 '정말 내 주인공에 관한 것이 직통으로 통했을까?' 하는 못 믿는 구석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질문의 기회가 있어 스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가 믿는다 하면서도 혹시라도 못 믿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스님: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수박을 심어서 먹고 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수박씨를 심어서 수박이 또 났습니다. 근데 작년 수박하고 올 수박하고 다릅니까?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자(여): 예.

▲스님: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다르다는 거와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씨가 그 씨고 그 수박이 그 수박이니까요. 삼천 년 전 부처님의 마음이나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마음이나 들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금방 이 자리에 앉아서 집에 갔다 오 시라면 갔다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서도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통장은 어디다 뒀고, 하하하... 밥통은 어디 있고 똥통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렇게 묘하게 지구 밖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불주머니에서 나와서 불주머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불주머니에서 살고 있다는 거는 여항 속에서 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소립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모든 자생중생들을 제도하고 위로는 이 여항 속에서 벗어나고, 일

체제불의 마음과 내 마음이 들어 아니게 항상 잘 나찰나 서로가 통하고 이렇게 삶을 살면 우린 작년이 따로 없고 올이 따로 없고 내년이 따로 없습니다. 모습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고 화하고 또 변하면서 이렇게 자꾸 바뀌 가며 살고 있습니다. 별성도 또 자기 몸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도 역시 자꾸자꾸 바뀌 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미래의 오늘에 오는 그 모습은 짐승의 모습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의 몸으로 살다가 짐승의 몸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의 모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과 마음을, 항상 자기를 잘 이끌어 가는 체적이 되어 된다는 얘깁니다.

아까 그 다람쥐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벽을 치면 붓장이 울리듯이 '삼천 년 전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일러 다오.' 그랬으니 그 다람쥐가 보였다고 하더라도 살았다는 걸로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살고 계시다는 거를 말합니다. 네? 그 다람쥐의 모습을 보지 말고 다람쥐가 움직여주고 살았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질문자(남):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정말, 오늘 여기 오신 신도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신도님들은 법문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실천 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는 깊은 감명 감동을 가지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듣고 갑니다. 그러나 돌아서 나가면 그 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체를 가지는 것과 아울러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이 되고 지속적으로 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 절에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해 주고 만날 그저 이 말 저 말 끝어다 대서 말을 한다고 그러실지도 모르지만, 부처님께서 전제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금 현재의 용어로 바꿔서 얘기해 드린 거지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부터 아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삼천 년 전에 그러셨고 사대 성인들도 그러셨어요. '너부터 알라.' 했습니다. 달마 대사로 그 소리 했다고 약사발을 받고 소크라테스도 약사발을 받았습니까만 내막을 본다면 그분들만 그렇게 약사발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육신이 나무라면 뿌리는 그 나무 밑에 있다. 그러나 나무 밑에 있는 뿌리한테 믿고 맡겨 놔라 이겁니다. '해 주시오' 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합니다. '해 주시오' 하면 벌써 들어 돼요. 그러니까 '너만이 낮게 할 수 있다.' 이런다면 금방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화합합니다. 그래서 나무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관한다면 관세음에 돼 주고 신장이 돼 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무어 주십니다. 그러면 안에서 자생중생이 화해서 그렇게 보살의 나뭇으로 응신이 돼 주십니다. 그러면 안에서 깨달음도 있고 물리도 터지고 지혜도 생기고 또 생활하는 데도 이익하게 돌아가고,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어서, 자기 뿌리를 믿지 않고 뿌리한테 들어대고 기도하지 말고 내 뿌리한테 들어대고 '너만이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것, 외부에서 다가오는 것, 모든 것을 '너만이 할 수 있고 너만이 낮게 할 수 있고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고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고 너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고...' 하고 맡기세요. 모두 거기다가 맡겨 놓으시고 '너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아주 그냥 밝아지지요.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그렇게 알아야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끝수도 알 수가 있고 일체 중생들의 마음도 알 수가 있고 중생과 부처가 들어 아님도 알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모두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0월 10일 부산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9면에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직코스로 들어가자, 주인공!' 하면서 갔는데 정말로 아직 더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퉁이를 도니까 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하, 이거였구나! 축지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었고 뜻밖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가져온 의문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주인공이 나한테 가르쳐 줄 것!'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를

하고 탁 돌아서 나오는 순간에 마침 풀숲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쪼르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래, 삼천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늘이 부처님과 다름이 없고 모두 한마음 주인공이라면 너하고 나하고도 들어 아닐 것이 아니냐, 주인공. 다람쥐, 너들 나하고 다르겠느냐. 한 마음이라면 네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제 마음 속으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다람쥐가 가다가 탁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에 대고 '그래, 보여 줘. 정말로 한마음이라면 보여 줘. 네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하니 다람쥐가 얼굴을 탁 돌리는

“ 모든 것을 근본에다 맡겨 놓고 진실로 믿는다면 아주 그냥 밝아집니다 그리고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

거룩한 만남 800회 특집

나누는 마음, 아름다운 세상

1991년 4월 첫 방송 이래 16년을 한결같이 자비행을 실천하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룩한 만남이 800회를 맞아 감사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2006년 11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뵈겠습니다.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BBS 불교방송

부산 89.9 Mhz / 광주 89.7 Mhz / 대구 94.5 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 97.7 Mhz / 포항 105.5 Mhz